

“4·10 총선은 미래를 택한 대전시민의 위대한 승리”

더불어민주당 대전 당선인 7명, 당선 공식 첫 일정으로 현충탑과 홍범도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새·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1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 묘역에 참배하고 ‘위대한 선택’을 해 준 대전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대전지역 7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당선 첫 일정으로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김기범(서구)·조승래(유성)·김홍정(아유성)·을(부평현·대덕) 국회의원 당선인과 최옥술 유성구의원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 묘역에 참배했다.

현충탑 참배를 마친 장철민 대전시당위원장은 방명록에 ‘대전 시민들의 언제나 역사의 진전과 역사의 발

습니다’고 적어, 이번 총선에서 대전시민의 선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현충탑 이어 홍범도 장군 묘역

을 찾아 참배를 마친 당선자들은 ‘미래를 택한 대전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는 대전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민과 쌔우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국민의 승리”라며 대전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시민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당선자들이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라며 “대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 시민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용갑(서구) 당선인은 “다

이내미 대전이다. 대전 시민들은 언제나 역사의 진전과 역사의 발

전을 선택했다.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허태정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승래(유성)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대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승래 당선인은 “선거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시장은 철도 지하화, 대전교도소 이전 등 많은 약속을 했다. 여야

공히 공약했던 것들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어 현안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대덕) 당선인은 “정말

민심이 무섭다. 민심을 열심히 받들겠다”고 말했으며 장종태(서구)

김기범(아유성) 당선인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박용갑(중구) 당선인은 “지하상

가 등 중구의 가장 큰 현인들을 당선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풀어가 겠다”고 했으며, 황정아(유성) 당선인은 “R&D 예산을 복원해 달라는 뜨거운 민심을 현장에서 읊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옥술 유성구 의원 당선인은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제선 중구청장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 자리를 함께 하기 못했지만 “중구민의 뜻에 따르는 구정으로, 구민의

보다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정복 기자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 취업현황 등 정보 투명해진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보공시 의무화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장에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 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준에 시·도지사만 수립했던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정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며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정비됐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평생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인증서 발급 및 활용 방안 등도 규정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기준 475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를 실시하기 위해 시설 유형별로 공시 항목 및 범위, 수, 시기 등이 구체화됐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년·학급 당 학생 수, 예·결산 내역, 학생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생 현황을 비롯한 학생 진로 사항, 전 입교원 현황, 예·결산 내역, 등록금 및 학생 1명당 교육비 산정 근거 등에 대해 공시된다.

이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엔 교육과정, 정원, 교육기간·시간, 학습비, 강사 명단 등이 공시된다.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의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 이수 결과는 학점, 학력 등으로 인정이 가능케 하고 평생교육사 양성·배치 현황, 보수 수준·활동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과 절차도 규정됐다.

아울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및 인가 취소 때 해당 시설에서 학습 중인 재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때 장애유형을 고려해 수어, 자막, 점자 등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 등록·폐쇄 신고 때의 내용과 절차도 규정됐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해 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기준은 기존 5명에서 최소한의 교육질 관리를 고려해 1명으로 완화됐다.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이 기간에 관한 것만 명시돼 있던 것을 회차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국

민의 알권리 및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와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연내에 법령 해설서 개발·안내 등 후속조치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여당 참패’에 대통령실 참모·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尹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쇄신·민생 안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4·10 총선 다음 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도 전원 사의를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다”고 피력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파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리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했다.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이라는 물음에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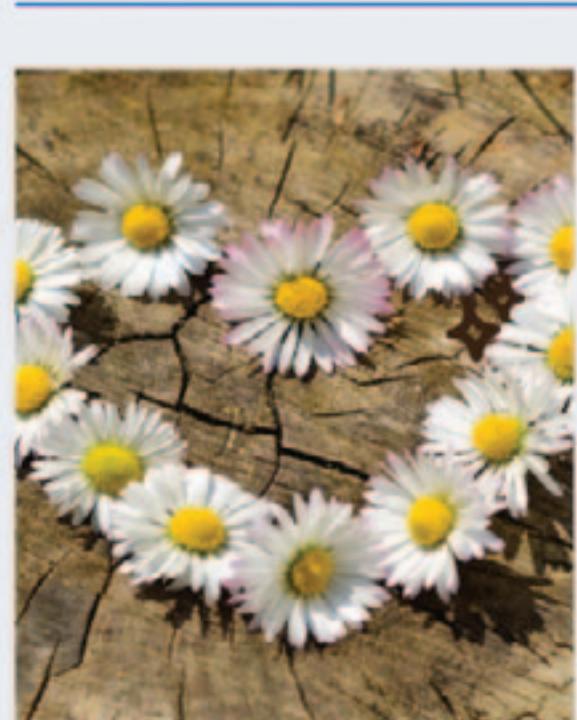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성격 등



C-Lab
청년마음건강연구소

문의)
네이버 블로그/인스타 DM
메일-clablab_10@naver.com
문자전화-070-8098-1834



<당선인>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4·10 총선 대전 동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당선인은 11일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 의원으로서 더 큰 동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중구 지역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당선인은 11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3선 중구청장을 역임한 박 당선인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가서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더 큰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대전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당선인은 "시급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서구갑 주민들께 밥값 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초심을 잊지 않고 모범이 되는, 희망의 정치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에서 승리한 박범계 당선인은 11일 "현장 의정과 민생 의정을 최우선으로 행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당선은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라면서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당선인>

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당선인은 11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간 공김대를 이룬 대전교도소 이전,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인>

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은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당선인은 11일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심판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준엄한 명령에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황 후보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우주에 별을 쏘아 올리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희망의 별을 쏘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당선인>

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대덕구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당선인은 11일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 덕분에 저 박정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며 "오늘의 승리는 박정현의 승리가 아니다. 대덕구민의 승리, 대전시민의 승리,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 박정현은 대덕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 대덕구민의 삶을 지키는 실력 있는 국회의원, 대덕구민 곁에 늘 함께 있는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히고 "군주민수' 그 뜻을 다시 기asmine 깊이 새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선인>

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재선 고지에 올라선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당선인은 "이제 막 시동이 걸린 천안 발전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차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천안시민의 승리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제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 기초를 바꿔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국정 기초를 바꿔내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당선인>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59) 당선인은 11일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 첫 도전에서 금배지를 달게 된 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인>

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51) 당선인은 11일 “오만하고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릴 것이며,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승리로 재선 고지에 오른 이 당선인은 “우선 나에게 인겨주신 압도적 승리와 뜨거운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

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제22대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3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성일종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11일 아침 첫 일정으로 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인 이종일·문양복 선생 생가와 순국선열을 모신 총령각·총훈탑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성 당선인은 3선 의원이 된 소감에 대해 “서산시민과 태안군민들께서 집권여당 소속의 3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중앙부에서 지역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인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도시」를 반드시 만들 것이며, 향후 4년은 이를 위한 큰 도약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

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에서 처음으로 3연속 당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61) 당선인은 11일 “당진항을 충청권 대표 항만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어 당선인은 “3선 중진의 힘으로 활력이 넘치는 당진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당선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고 설욕에 성공했다.

세 번째 격돌 끝에 승리한 박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당선의 기쁨보다는 민심의 엄중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준 선거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당선인은 “유권자들께서 내리신 정치의 복원, 민생의 회복을 지상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엄중함에 우리가 또다시 매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국민의 준엄한 말씀을 재차 언급했다.



<당선인>

충남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충남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복기왕(56) 당선인은 11일 “정치 개혁과 대한민국의 더 큰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협 의원에게 불과 수백표 차이로 낙선한 뒤 권토중래 끝에 4년 만에 여의도 입성에 성공하게 된 복 당선인은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확인했으며,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50) 당선인은 11일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강 당선인은 “저와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분들께,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장동혁

충남 보령·서천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장동혁(54) 당선인은 11일 “산업기반을 확충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당 사무총장이기도 한 장 당선인은 “초심을 잊지 않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당선인>

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59) 당선인은 11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 회복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3선 논산시장 출신인 황 당선인은 “논산·계룡·금산 주민의 선택에 진실로 감사드린다. 주민 가까이, 현장에서 뛰고 또 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선인>

충남 홍성·예산 국민의힘 강승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강승규(60) 당선인은 11일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홍성·예산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 당선인은 “원도심 부활을 비롯해 그동안 밀려 있던 여러 가지 숙제를 대통령과 도지사, 군수, 지방의회와 함께 힘 있고 빠르게 이뤄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정●

어린이집 개원식



박희조 동구청
장 = 12일 오
전 10시 30분
가양동 고운
하이플러스아
파트 내 고운
하이플러스 어린이집 개원식 참
석.

중간보고회



서철모 서구청
장 = 12일 오
후 3시 서구청
장태 산실에서
열리는 서구
창업지원 서비
스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 참
석.

창조경영 2024 시상식



정용래 유성구
청장 = 12일
오전 11시 서
울 더플리자
호텔에서 열
리는 대한민
국 창조경영 2024 시상식 참석.

공영주차장준공식



최종규 대덕구
청장 = 12일
오후 1시 30분
읍내동 322-4
번지 일원에
서 열리는 대
덕문화원 인근 공영주차장 준공
식 참석.

별별인문학 5월 수강생 모집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1일
부터 26일까지 전민평생학습센터 별
별인문학 「지피지기(知彼知己), 타인과
함께하는 나愛 이야기」 수강생을 모집
한다.

2024 전민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
하는 「별별인문학」은 5월부터 8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고사상어를 테마로
「뉴노벌 시대를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나愛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하며,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전민구
암 평생학습센터, 전민 복합문화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5월 지피지기(知
彼知己) ▲6월 타산지석(他山之石) ▲7
월 수신제 가(修身齊家) ▲8월 학이시
습(學而時習) 등 다변화된 사회를 살아
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
양 및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프로그
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5월 뇌과학자 임현균 박사와
함께하는 「지피지기(知彼知己), 타인과
함께하는 나愛 이야기」는 총 3회(1회,
8회, 22회)에 걸쳐 운영되며, 수강인원
은 선착순 20명으로 유성구 평생학습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
세한 내용은 유성구 평생학습과(☎
042-611-6553)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새로운 일상
을 맞이하는 주민들이 평생 학습을 통
해 인문학적 사고를 확장하고 삶의 원
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
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시내버스 급행2번 노선조정 · 급행4번 신설 운행

市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대”

대전시는 5월 10일부터 급행2
번의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급행
4번을 신설 운행한다.

이번 노선조정은 ▲거점시설
(대전역~복합터미널)간의 연계성
강화 ▲도로변 정차 개선을 통한
인전역 강화 ▲친환경자동차 도
입에 따른 충전문제 해소 ▲장거
리 노선 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급행2번은 봉산동 기점에서

대전역 종점까지 운행된다. 대전
여성 정류장을 추가 정차하며, 한
밭종합운동장 및 옥계동까지 이
동 시에는 급행4번으로 환승해야
한다.

신설되는 급행4번은 낭월동기
점과 출발하여 석천들미을아파
트, e편한세상아파트, 오투그란데
아파트를 정차하며, 복합터미널, 한
신 휴플러스(비래동)정류장 정

차 후 비래동 종점까지 운행한다.
시는 노선조정과 관련해 대전
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버
스 내부 및 정류장 안내문 부착,
각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
해 안내 할 예정이다.

또한, 조정되는 노선 운행에 차
질이 없도록 차량 준비, 버스정보
시스템(BIS) 탑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은 “거점시설 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대
에 초점을 맞춰 노선을 조정했다”

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 현황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적시에 편
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덕구, ‘산사태 예방’ 읍내동 백송아파트 사방사업 설명회

지난해 집중호우 따른 산사태 등 안전사고 우려

대덕구(구청장 최종규)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밤 빗고 나섰
다.

대덕구는 11일 오후 2시 읍내
동 백송아파트에서 대전시와 ‘산
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해 여
름 집중호우로 인해 백송아파트
인근 산지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
려됨에 따라 대덕구와 대전시가
모여온다.

요도는 사업비는 대전시에서 전
액 지원하고 대덕구는 사업을 긴
급 발주해 5월 초 착공할 계획이
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난으로
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시정의 가장 기본적
인 의무”라며 “안전 취약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
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대전시와 대덕구는 백송아파트
일원에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
업’을 추진해 사면 안정성을 확보
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도는 사업비는 대전시에서 전
액 지원하고 대덕구는 사업을 긴
급 발주해 5월 초 착공할 계획이
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재난으로
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시정의 가장 기본적
인 의무”라며 “안전 취약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
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서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과 공사 관계
자와 ‘인전’에 초점을 맞춰 공사
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대덕
구민의 일상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구, 탄소중립 생활실천 위한 기후변화주간 운영

이달 22일부터 소동행사·기후위기 사진전 등 열려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탄소중
립 인식 제고와 실천의지 확산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기
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제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운영
되는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주제
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함이 아닌 지구를 구

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온다
는 기대와 다른 긍정적인 일임을
뜻한다.

구는 이번 기후변화주간 기
간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먼저,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
해 오후 8시부터 10분간 열리는
전국 소동행사에 대전을 대표하

는 애경 명소인 식장산 전망대
를 비롯해, 동구청과 한국철도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공
공기관과 공동주택이 동참할 예
정이다.

또 22일부터 27일까지 동구청
로비에서 기후위기 사진전을 열
며 24일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
중교통 이용 확산을 위한 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

27일에는 동구청 광장에서 초
등학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일

회용 컵을 다육식물 화분으로 바
꾸는 새활동 체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많은 구민
이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
치겠다”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제기로 이를 담고 평온한 기후를
위한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친환경 해충퇴치기 추가 설치가동

서구, 친환경 포총기 설치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서구(구청장 서철모) 보건소는
관내 관자동 일대 5개 공원에 10
대의 친환경 해충퇴치기(포총기)
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11일 밝혔
다.

포총기는 해충이 선호하는
LED파장 램프로 모기, 꿀벌, 날
벌레 등 위생 해충을 유인하여 포
획한 후 분쇄, 제거하는 물리적 방
제 기기이다. 특히 화학 방역 약품
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살충제를
사용하는 연무소독에 비해 친환
경적이며, 인체에 무해한 것이 특
징이다.

현재 서구는 은평공원, 광마공
원, 남선공원 등 34곳에 총 126대
의 포총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이번에 관자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하늘아래

공원 ▲모룡이 어린이공원 ▲금
동어린이공원 ▲테니스장 ▲선유
근린공원에 총 10대를 포총기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구는 포총기 작동 관리를
위해 소모품 교체 등 주기적
점검을 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
월까지 가로등 점등과 소동 시간
에 맞춰 포총기를 작동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기후 변화로 모
기, 진드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 및 확
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감
염병 예방은 물론 구민들의 생활
편의와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
경 방제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안
전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
고 말했다.



대덕구,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 위탁 운영 개시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 실현 기대

대덕구(구청장 최종규)는 ‘오정
동 지역공헌센터’를 오정 마을관
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염학
선, 이하 오정마을조합)에 민간 위
탁해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오정동 443-
13번지 일원에 위치한 ‘오정동 지
역공헌센터’는 오정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거점으로, 주민과 행정
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주
민 공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구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3
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설정해
오정마을조합이 운영 및 수익모
델 발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정마을조합은 시범운영 기간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문화프

로그램 운영, 대관사업 등을 추진
해 노하우 knowhow를 축적했으
며, 오정동 가스폭발 사고 시 피해
주민 임시거주 및 사고 대책본부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는 등 오정동 지역공헌센터가 지
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오정마을조합을 수탁자
로 최종 선정, 이달부터 운영에 나
섰다.

오정마을조합은 앞으로 대관사
업, 임대 사업 등 운영수익을 바탕

으로 주민 역량강화사업, 주민 여
가 문화사업, 미술환경정화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해 지속적
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규 대덕구청장은 “오정동

봄 나들이 패션 행사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정승
욱)이 원연히 다가온 봄을 맞아
다양한 봄 나들이 패션상품 제안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패션 상품군에서는 다양
한 의류의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탑텐에서는 12일부터 5월 2일
까지 인기상품 1+1 행사를 진행
한다. 린넨 셔츠(1+1, 4만 9900원)
을 비롯해 벤딩 슬랙스(1+1, 4만
9900원) 및 빙글티셔츠(1+1, 2만
5900원) 등 한개 가격으로 2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여성 패션 브랜드인 케이트
리조트 휴트니스에서는 디자인
한의류의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탑텐에서는 12일부터 5월 2일
까지 인기상품 1+1 행사를 진행
한다. 린넨 셔츠(1+1, 4만 9900원)
을 비롯해 벤딩 슬랙스(1+1, 4만
9900원) 및 빙글티셔츠(1+1, 2만
5900원) 등 한개 가격으로 2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봄을 맞아 편안한 숙면을 위한
침구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다.

박종근에서는 다양한 침구들
을 30~60% 할인하는 침구행사
를 12일부터 18일까지 1층 이
벤트홀에서 진행한다. 여성화 5
만 9천원~7만 9천원, 핸드백 5만
9천원~9만 9천원까지 만나볼 수
있다.

리조트 휴트니스에서는 봄을
맞아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스포

시민광장에서 진행되는 디조트
휴트니스 러닝 크루 이벤트' 접수
를 진행한다. 참가비 1만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건강
한 봄을 나누기 위한 러닝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봄을 맞아 편안한 숙면을 위한
침구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다.

대전에서는 다양한 침구들
을 30~60% 할인하는 침구행사
를 12일부터 18일까지 1층 이
벤트홀에서 진행한다. 슬립 앤
슬립에서도 차렵세트, 차렵이불,
토퍼 등의 이월 및 신상품을
30~50% 할인 판매한다. 나이스
필 역시 신상품을 20~60% 할인
판매한다. 더불어 행사 참여 브랜
드에 한해 구매금액 대별 10% 상
당하는 고객 모바일 상품권을

우리/동/네

천안문화예술명소조성사업 '신부 르네상스 존' 개막



신성기업(주), 천안시복지재단에

주거취약계층 위해 후원금 전달

신성기업(주)(대표 입장혁)은 11일 천안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들리며 후원금 3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에 전달했다.

신성기업(주)은 알미늄샵시 대형 유통 종판기업으로, 2020년부터 코로나19 긴급지원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동참해오고 있으며, 금번 기부금은 천안시 주거 취약계층의 괘색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선풍기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장혁 대표는 "요즘 이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별써부터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부더위에 취약한 분들에게 잘 전달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운형 이사장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후원금은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도시농부학교 8기 개장식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원)는 11일 도시농부학교 실습밭에서 천안도시농부학교 8기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강식은 도시농부학교 교육생 100명을 포함해 교육생 가족과 어린이집 원생, 도시농업전문가 등이 참석해 천안시립흥미봉동물단의 축하공연, 개장식 공동텃밭 모종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환읍 행복자원단, 2분기 정기회의 개최 성환읍 행복기금지원단(단장 이경란)은 11일 성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행복기금지원단은 정기회의를 통해 1분기 사업 결과보고, 복지위기기구 발굴논의와 2분기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 선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천안 대표 문화예술명소로의 이미지 확립



또 오현(5000), 레이디바운스(ladybounce), 락커지(Locker Zee) 등 대로라하는 스트릿 댄스 팀(16팀)의 경연과 천안 버스킹단 씨잇(C-arts), 천안청년 센터 동호회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X청년방방페스티벌' 공연이 펼쳐진다.

인동순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스트릿 댄스, 버스킹단, 천안청년들과 함께 신부동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며 "천안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소통망(instagram.com/faccnac)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축제사업팀(041-900-73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정복기자

'명품 천안배' 만든다... 박상돈 천안시장인공수분 일손 돋기

25년째 배꽃 인공수분 일손돕기 추진

천안시는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11일 배꽃 개화기를 맞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배농가를 찾아 인공수분에 일손을 보탰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조승국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지역 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성

을해는 지난해보다 배꽃 만개 시기가 일주일 정도 늦어지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더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 2000년부터 25년째 배꽃 인공수분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 공무원 14개 부서 153명을 투입해 17개 소규모 고령·여성 농가 약 24㏊ 지원에 나선다.

또한 16일까지 성황을 성기

읍·직선읍·입장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천안배원에농협과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박상돈 시장은 "농가 일손돕기 현장에서 농민들과 만나 농업인의 고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하루였다"며 "앞으로 농가의 고충을 귀담아 들고 명품 천안배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농가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동남구 '빼빼빼'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송재열)는 협업 플랫폼 '빼빼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남구는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8과 40팀, 17개 읍면동 총무팀을 대상으로 사이렌 소리에 빙팅 일명 '빼빼빼' 단톡방을 운영해왔다.

지난 1월 대설주의보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본부비상 1단계 가동 시 동남구 전직원이 세설 조치를 하면서 '빼빼빼'를 통해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불법지주간판 민원 제보 시엔 건축과와 건설과가 협업해 추진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확인했다.

이에 동남구는 앞으로 산불화재는 물론 당직 상황 근무 시 발생한 동향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구정에 확대 적용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송재열 구청장은 "신속 처리가 생명인 생활민원에 대해서 유선이나 대면 보고 절차 없이 '빼빼빼' 단톡방을 통해 빠르게 처리해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원들과 구정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충남 최초 홈페이지 내 공직자 성명 비공개 전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충남대표로 안건상정 예정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홈페이지 내 공직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공직자 성명을 비공개

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3월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에 '직원 정보 부분공개(성명 비공개)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 예정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충남을 대표

또 2015년부터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해 1대1 개인 상담과 심리검사, 특강 등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사 내에 상담공간을 마련해 주1회 출장상담원이 세설 조치를 하면서 '빼빼빼'를 통해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불법지주간판 민원 제보 시엔 건축과와 건설과가 협업해 추진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확인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지역대학병원과 소아 약간응급의료체계 인프라 구축

천안시가 단국대학교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소아 아간응급의료체계 인프라를 구축한다.

시는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 진

료가 가능한 단국대병원과 순천향 대병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소아 응급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

사 인력 감소로 인하여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전공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소아 약간응급의료체계 인프라를 구축해 천안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권역 시민들도 소아 응급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이다.

천안시, 12~14일 '삼성SDI~번영로고가교 앞' 복구 포장 공사

천안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번영로(삼성SDI ~ 번영로 고가교 앞) 구간 관로공사 완료에 따른 복구 포장을 시행한다.

시는 기동률이 저조한 제3단

폐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북부BIT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북부지역 신규 산업단지 3개소의 폐수를 제3산단 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관로 매설 공사

를 추진한다. 25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19.7km에 이르는 관로를 연장하고 중계펌프장 4개소를 신설한다. 시는 지난 3월까지 관로를 매설한 삼성SDI ~ 번영로고가교 앞

구간에 대해 복구 포장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포장 공사 기간 동안의 차량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복구 포장 시 철거된 중앙분리대에 좌회전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광고문의

(042)538-3030

한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가 운영하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평생 받는 연금이니까
기금적립금 1036조, 투자수익금 578조

나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NPS 국민연금공단

천안=정민경기자

보건복지부



2023년 TVCF 보리카기

정민경
천안=정민경기자



충남경찰청, 청렴 선도그룹 '올바름' 발대식 개최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11일 준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선도그룹 '올바름' 발대식을 개최, 의무위반 근절 등 청렴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당진소방서, 소회기로 화재 자체진압 유공자 표창 수여 당진소방서는 11일, 합덕읍 운산리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말소화기로 큰 피해 없이 초기에 자체 진압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예산군,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펼쳐 예산군은 덕산면 외 9개 읍면 이어 자동차 출장검사소를 방문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자전거 안전모 착용 ▲노면변화주의 ▲법규 준수 ▲보호자 무단횡단금지 ▲횡단 시 주위 확인 ▲아간 밤은 옷 착용 ▲즐음운전 예방을 위해 줄리면 후식·환기 ▲즐음운전 차량발견 시 차량 경적 ▲농기계 사전 점검과 방법 숙달 ▲농기계 음주 운행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했다.



논산소방서, 봄철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협동훈련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지난 9일 산불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화재 초기 최고수위 적극 대응을 위한 협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만희 대전보훈청장,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참석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 강만희 청장(오른쪽 두번 째)은 11일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대회의실(舊 충남도청사)에서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지부장 양준영)가 주관하는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김진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지부장(오른쪽) 등 참가자들과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유성구새마을부녀회, 유성구복지관서 급식봉사 지원 대전 유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명선) 새마을지도자 20명은 11일 제44회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유성구장애인복지관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어르신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사고 198,296건(0.7%↑) 사망 2,551명(6.7%↓) 부상 283,799명(0.7%↑)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 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하였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하였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

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

소하였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 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하였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하였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하였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 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하였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하였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 8명, 26.7%↑, 대구 16명, 24.2%↑, 대전 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 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 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남경찰, 선거사범 62건

79명 단속…66명 수사중

충남경찰청은 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62건 79명을 단속하고 이중 2명을 송치했으며, 66명은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31명(39.2%) ▲현수막·벽화 훼손 13명(16.5%) ▲급품수수 9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지난 21대 총선보다 3배인 55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된 첫 번째 치러진 선거사범 단속으로 경찰의 단속인원증가에 따른것으로 해석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22대 국회 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계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아산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 시행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원천 봉쇄

아산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 산림과는 지난 3월 27일 염치읍에서 농업기술과와 함께으로 불법 소각 단속을 벌였으며, 4월 2일에는 도고면에서 농업기술과와 협동 캠페인을 벌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시연하고 불법 소각 금지 글자를 흥보했다.

또한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기술과와 협동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파쇄 신청 대

상자를 신청받아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산불 취약지인 산림 연접지(100m 이내)를 우선 설정하고, 파쇄 취약계층인 고령 농업인 신청지 및 이외 농경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충청남도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임산자 실화가 48%, 소각 산불이 18.7%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반부패 제도 완성도 높인다”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제1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지난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2년간 총 10회의 간담회와 294회의 자문을 통해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교수, 변호

사, 회계사,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 총 65명을 대상으로 위촉하였으며, 지난 1기 자문단에서 활동한 53명의 재위촉 위원들과 12명의 신규 위촉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제2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제1기에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부패 법령·제도의 해석·적용에 대응하고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충청남도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본부장 나재필)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간접신체검사와 고령운전 교육을 2024년 4월 12일 흥성군 시작으로 6월 21일 금산군까지 충남도내 15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

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이 되고 적성검사 및 간접신체검사와 고령운전 교육이 의무화되어 시행 중에 있다.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려면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이 위치한 충남 예산군이나 대전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청과 충남교통연수원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예산군 교통안전교육장을 중심으로 협조를進め어 왔다.

이정복기자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선정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위험성 평가”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잠재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기간은 3년이며, 안전보건 감독 대상 선정 유예, 산재보험료 20% 인하,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추천, 고용노동부 인전보건감독대상 선정 등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도시공사 환경에너지사업소는 위험성 평가 실행수준 등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결과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심사는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사업장 순회점검, 직원 청취조사, 아차사고 사전 발굴 및 조치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대전,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 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로 잘 알려진 ‘델라웨어’가 대전에서 올해 첫 전국 출하된다.

대전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숙)에 따르면 대전 동구 대별동 송일구 씨 농가에서 4월 11일 ‘델라웨어’를 출하했다.

송일구 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설하우스(2,600㎡)를 3층으로 비닐 폐복한 후 기온에서 포도 생육에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했다.

특히 올해는 잣은 비와 허린 날씨가 지속되고 일조량 부족 및 고우가로 인한 경영비 상승 등으로 조기 기온재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육 환경을 최적화한 노력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2~3개월 앞서 첫 수확의 결실을 보게 됐다.

씨가 없어 먹기 좋은 ‘델라웨어’ 포도알은 15~18g으로 일반 포도보다 작지만, 평균 당도가 18~20brix으로 일반 포도(캡벨얼리)보다 4brix 정도 높아 단맛이 훨씬 강하다.

김태선기자



공주소방서

무인빨래방 이용 안전수칙 홍보

특히, 라이터나 기름이 찌든 옷 등을 넣고 건조기를 작동할 경우 폭발 등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 지난 4월, 스페인의 한 빨래방에서 건조기가 폭발했는데, 빨랫감 주머니 속 라이터가 원인 이었다.

이러한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으로는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리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세탁물을 기계 사용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등이 있다.

류일희 서장은 “안전은 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을 숙지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학령인구 감소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2027년까지 신규 임용 규모는 2600~29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부가 13년째 동결 중인 전국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2025학년부터 약 12% 감축한다. 2027년까지 신규 임용 규모는 2600~29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교육대학 정원 정기 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규채용 규모(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이 현 정원(3847명)에서 457명(11.87%) 감축된다.

이에 따른 내년 각 교대 입학정원은 ▲서울교대 312명 ▲부산교대 313명 ▲대구교대 337명 ▲경인교대 526명 ▲광주교대 287명 ▲충전교대 282명 ▲청주교대 252명 ▲공주교대 312명 ▲전주교대 251명 ▲전주교대 281명 ▲제주대 100명 ▲한국교원대 98명 ▲이화여대 39명 등 총 3390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학정원 감축분에 한시적 모집유보 정원을 적용할 수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모수가 적어 대학 자율조정으로 추진한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향후 2025년 신규채용 교원 수는 2900~3200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2600~2900명 내외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교대 정원을 2005년 6225명에서 매년 300~500명씩 줄이다가 2012년 3848명에서 2016년 1명 줄인 3847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 조종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있는데, 교육부는 2024년도 '국립대학 유행성시작'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임용 합격률은 63.9%(2018년)에서 ▲50.8%(2021년) ▲48.6%(2022년) ▲47.7%(2023년) ▲43.6%(2024년) 등 계속 떨어졌다.

이어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한 이 이같은 교대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에 2024년도 '국립대학 유행성시작'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유행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인센티브 비중

도 40%에서 60%로 늘어나 교대 정원 감축이 인센티브 평가에서 반영될 것이므로 교대 전반의 재정지원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育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교육청, 2024 1분기 유아학비 지원

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 242개원 유아대상… 총 186억 지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박세권)은 공·사립유치원 242개원(공립 104개원, 사립 138개원) 18,905명에 2024학년도 1분기 유아학비 186억 6천 9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국적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을 포함하여 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35만 원이다. 2024학년도부터는 5세 유아의 교육과정비를 5만원 추가로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초등교사 17명 대상… 오는 6월 27일까지

‘2024초기 문해력지도’ 직무연수 운영



제▲학생 지도사례 나눔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연수생 간의 학생 지도사례 나눔과 지속적인 문해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장 적용도를 높이고 세종시교육청의 ‘한글 책임교육 실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후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는 소속 학교에서 한글 미해득 학생 1명을 선정하여 학생의 학습력 강화를 위해 연수 과정에서 습득한 문해력 지도 방법으로 학생 맞춤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운희 미래교육과장은 “한글 해득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읽기 따라잡기 연수의 최종 목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습 기회를, 교사들에게는 더 나은 읽기 지도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천안기온초 충청남도소년체육대회 상 쌍끌이 천안기온초등학교(교장 이운미)는 4월 4~9일까지 경도 충북에 걸친 도내 학생 2명, 수영종목에 4명, 태권도 종목에 1명이 제2회 충청남도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빛나는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을 건강 지킴이와 함께 하는 진로 체험

금산여자고등학교 보건 동아리 골든타임 학생들



금산여자고등학교(교장 백승경) 보건 동아리 골든타임 학생 18명은 지난 3일 '마을 건강 지킴이와 함께 하는 진로 체험'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

이번 진로 체험에서는 금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에서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요가와 명상체험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군북보건진료소(소장 윤정옥)」로 이동하여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을

위해 하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 듣고 만성 질환을 가진 주민들이 의사와 영상으로 원격진료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다.

박OO 학생은 요가와 명상 시간을 통해 자세 교정과 고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이OO 학생은 지역의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지영 보건교사는 우리 마을에 있는 건강증진 기관을 견학하고 마을의 건강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학생들의 좋은 기억이 니중에 마을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며 소방서, 요양병원 등 우리 마을에서 진로체험을 더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군북보건진료소(소장 윤정옥)」로 이동하여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을

금산=이정복기자

“직접 가서 배우는 경제버스 출발!”

청양고 비즈니스과 학생들 ‘경제버스’ 견학프로그램 운영



청양고등학교 교장 김경수는 비즈니스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청양고 경제버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과서적인 경제금융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는 교육이 아닌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 직접 가보고 느끼는 ‘경험’ 중심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경제버스를 타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를 배우고 금융 시장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었

청양=정상범기자

‘세대공감 함께 책 읽기’ 운영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원장 신재민)은 오는 15일부터 남부권역 초·중·고 30교 984명의 학생과 교사가 함께 책을 읽고 한 줄 평 쓰기를 한다고 밝혔다.

‘세대공감 함께 책 읽기’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공감할 만한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고, 경험하고, 소통하는 활동으로 논산·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남부권역 학생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선정 도서는 아동도서『걱정 세탁소』,『고양이가 필요해』,『친구의 전설』,『일반도서』『고요한 우연』,『눈부신 안부』,『페미안』총 6권이다. 30개 학교에

서 구성한 65개의 독서 팀이 선정 도서 중 1권을 정하여 함께 읽고 한 줄 평 쓰기를 하는 내용으로 운영되며, 독서토론과 자기외의 만남도 진행할 예정이다.

원봉초 교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대공감 함께 책 읽기 사업에 참여하는데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 좋은 책을 읽고 소통할 시간을 생각나니 벌써 기대가 된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남부평생교육원은 남부권역 공공도서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대가 함께 한 책을 읽고 한 줄 평 쓰기와 독서토론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당진교육지원청 “마을과 함께하는 당진의 미래교육 계획하기”

마을교육과정 운영학교 나눔 자리 개최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2024 계획 단계 마을교육과정 운영학교 나눔 자리리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2024 마을기반 교육과정 예비 자율학교로 선정된 전대초, 꿈나리학교와 2024 당진 마을학교 운영학교로 선정된 한정초 등 모두 10개 학교가 모여 올해의 마을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마을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당진행복교육지구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관리자 및 교사, 마을교육

당진=최근수기자

예산교육지원청, 서약서 낭독 통해 갑질 등 균절 의지 다짐

전 직원 갑질 등 균절 결의대회 실시



근절 의지를 다짐했다.

또한,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결의 대회에 앞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자체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장 주관 청렴 교육과 함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발생 위험도, 조직 문화 개선 방향 등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실시했다.

김종하 교육장은 직원들과 함께 청렴 실천 및 갑질 등 균절 의지를 다짐하며, “상호 존중·배려·소통을 기반으로 청렴하고 행복한 조직 문화 조성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이산교육지원청, YMCA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

진로직업체험처 외부 강사 연수 진행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콘서트 ‘사립책, 도서관’, 버스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진로 원정대’, 대회차 심화형 진로 프로그램 ‘꾸밀 현장 스케치북’을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진로직업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박서우 교육장은 “진로교육은 생존 교육”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진로 전담 교사와 진로직업체험처 강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체험처 대상 수준별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산교육지원청은 지난주 4월 3일(수)에 자유하기와 진로교육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플랫폼 ‘꿈길’ 활용과 자유학기, 진로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를 먼저 진행했다. 아산 교육지원청은 그동안 관내 초,

아산=리량주기자

서부평생교육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교 14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한다.

특히, ‘위기에 빠진 도서관을 구해라!’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 도서관, 책 관련 내용을 방ikhail과 다양한 미션 이 결합된 게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다.

이기영 원장은 “도서관이 독서만 하는 조용한 곳이라는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방ikhail 등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숙함을 형성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현기자

서산 농특산물 표고버섯 미국 2차 수출

농업회사법인 (주)정담, 우수한 품질관리로 국내외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종남 서산시가 자랑하는 농특산물 표고버섯이 농업회사법인 (주)정담을 통해 미국 현지에 수출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정담의 이번 수출은 지난해 10월 7백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미국에 수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한화 1천만 원 상당의 물량이 12일 선적되며 5월 초 미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지역 농특산물 판촉 행사가 그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수출 기업인 (주)정담의 표고버섯은 음용수 기준에 합격한 지하 150m 암반수와 국내 첨나무 텁跛를 사용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버섯을 목표로 표고버



**젊은 아이디어로 혁신 더하기
청양군, 주니어보드 발대식 열려**

청양군군수 김돈관은 지난 9일, 젊은 실무자들의 국정 참여를 위한 '2024년 청양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주니어보드 직원 24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금년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주니어보드는 스마트운동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군정 현안 과제에 대해서 23건을 제안했고, 이 중 15건은 반영 또는 반영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도 군정 현안 과제에 대해 젊은 실무자 그룹의 다양한 관점과 제안 사항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은 워크숍, 팀별 과제 수행 활동, 과제 결과 발표와 기관장과의 간담회 등의 활동을 통해 실무자의 역량을 키우고 조직 소속감을 높일 예정이다.

김돈관 청양군수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군정 발전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영농현장 일제 출장의 날' 운영

아산시, 매주 수요일 농업인 현장지도

아산시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와 맞춤형 영농지도를 위해 4월부터 직접 빌로 뛰는 '일제 출장의 날'을 지정하고 영농현장 중심의 상담을 시작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현장 일제 출장의 날'은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운영되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17개읍면동의 영농현장을 찾아 현장 지도를 시행한다.

현장 지도는 농촌지도 분야 전 직원을 지역별 2~3명씩 1개 조로 편성해 ▲농업인의 불편·견의 사항 해결 ▲시기별·단계별 적기 농업 기술 전파 ▲영농현장 동향 파악 ▲시범사업장 사후관리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속적인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동향 파악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귀촌인과 후계 농업인을 적극 발굴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선=리량주기자

섯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무농약, GAP 인증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산시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미국의 농산물 시장에 인지도를 넓히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담은 이번 수출에 힘입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서산 표고버섯의 품질과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서산=김정한기자



생명 존중 민관협의체 대표자 회의 열려

당진시,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당진시가 지난 9일, 중회의실에서 김영명 부시장 주재로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생명 존중 민관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생명 존중 민관협의체'는 당진시청 유관부서를 비롯해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종합병원 ▲적십자사봉사회 ▲당진시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복지관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돼 기관별로 자살 예방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표자 회의에서는 ▲당진시 자살 사망 현황 ▲24년 자살 예방 사업계획 ▲기관별 자살 예방 협업과제 등을 공유하고 더욱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당진=최근수기자

국립한밭대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 선정

신소재공학과, 충청권역 에너지 기술 공유 통한 석박사급 지역특화 인재 양성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신소재공학과 이승윤 교수 연구팀(김정현·홍기하·신기현·이시원 교수)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모에 충청권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충청권 컨소시엄은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원장 탁송수)을 주관으로 5개 광역 기초자치단체(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청주시·충주시), 충청권 7개 대학(국립한밭대·국립공주대·국립한국교대·순천향대·청주대·충남대·충북대), 2개 지역혁신기관(충남테크노파크·대전테크노파크)이 참여했다.

본 사업은 지역 에너지산업의 생태계 위기와 지역인재 감소, 전문인력 양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대학-기업-혁신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의 지역기업 취업연계 지원과 산학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참여기관들은 총 6년간 2895억 원(정부지원금 170억 원, 자체 51억 원, 현금 685억 원)을 투입해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지역특화 미래에너지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모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연료전지, 전력계통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공동 개발·운영,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학점연계 채용형 현장실습, 취·창업 지원, 신규 채용을 위한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 프로젝트 수행이며, 국립한밭대학교는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핵심 역할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국립한밭대학교는 사업기간 동안 25.5억 원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며, 주에프씨아이, 에이치엔파워㈜, 주에센, PSS㈜ 등 대전 지역 내 수소연료전지 전문기업 및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등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생활 속 세금 고민, 무료로 혜택받으세요"

공주시,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의 세무 상담 및 지원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비용 문제로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 주는 제도이다.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납세자의 경우 공주시에서 위촉한 2명의 마을세무사에게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충청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우자를 포함해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지방세 과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절차나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840-83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 일꾼 양성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경귀 시장)는 아산시의 주체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유지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과 손을 잡고 자동차 가죽시트 봉제기술자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개인 면담, 봉제기술에 대한 이해도 등의 평가를 통해 총 10명의 교육생을 선발했으며 지난 8일, 첫 교육을 시작했다.

예산군 침수예방 공공하수도 준설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총력'

예산군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침수 예방을 위해 5월까지 공공하수도 준설 작업을 본격화 예상이다.

군은 우선 예산읍, 삽교읍 등 시가지 배수 불량 구간(2km) 및 민원 발생 지역을 선정해 이달 말부터 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공공 하수도 준설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번 준설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우기 전 준설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수관로와 맨홀에 쌓이는 퇴적물은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시 우수 배출이 되지 않아 저지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시 침수 원인이 되

는 주택 또는 상가 주변 집수정 및 맨홀 안에 낙엽, 쓰레기 등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건물 관리자는 주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후 이상으로 잦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전에 공공 하수관로 준설을 실시해 주민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퇴적물로 인한 악취를 제거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희기자

한국타이어 네이버쇼핑 브랜드데이 프로모션 · 라이브 방송 진행

12일 하루간 네이버 공식 브랜드스토어에서 특별 할인 행사 · 경품 증정



한국타이어는 행사를 기간 중 ▲플래그십 타이어 브랜드 '멘투스(Ventus)', ▲세계 최초 풀라이언트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 ▲SUV용 타이어 브랜드 '다이나프로(Dynapro)', ▲컴포트 타이어 브랜드 '카리지(Kinergy)' 등 '한국(Hankook)' 브랜드 주요 제품을 최대 4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또한, ▲아이온 에보(ION evo) ▲아이온 에보 AS(ION evo AS) ▲멘투스 S1 에보 Z(Ventus S1 evo Z) ▲멘투스 S1 에보 Z AS(Ventus S1 evo Z AS) 제품은 4개를 구매할 경우, '30일 혜피보증' 혜택을 적용해 구매 후 30일 동안 불만족 시 100% 환불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

되는 쇼핑라이브를 통해 아이온 에보 AS, 아이온 에보 AS SUV, 아이온 ST AS SUV 등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구매할 경우,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 중 제품을 구매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3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제비' 전기차 충전 크레딧을 증정하며, 별도로 30명을 추첨해 20만 원 상당의 'BMW 드라이빙 센터 스타터 팩'을 제공한다. 방송에서 진행되는 퀴즈의 정답을 맞힌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전달한다.

한편, '한국타이어 브랜드스토어'는 2022년 10월 오픈한 온라인 공식 판매 체널이다. 고객들은 승용차, SUV, 전기차 등 차량에 적합한 브랜드와 제품 성능을 한눈에 파악해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채널 내 쇼핑리스트 등에서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한국타이어는 브랜드스토어 구매 고객에게 무료 배송은 물론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 제조사 과실로 타이어 파손 시 마모율에 따라 보상해 주는 '품질보증 서비스', 구매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 6000km 내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 동일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안심 서비스'도 제공한다.

송병배기자

예산군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경영관리 효율화 · 재정건전성 강화 추진… 요금 현실화율 등 검토

예산군은 오는 5월 중순까지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문 기관 진단을 통한 경영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

에 오는 5월 중순 완료를 목표로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이다.

예산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중장기 경영 목표, 재정 운용방안, 경영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

관련 경영 관리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재무 및 경영 분석을 통해 단계별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만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희기자

내부통제시스템 본격 운영으로 경영 리스크 낮춘다

자율관리시스템 정착으로 업무처리 오류 사전예방 기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호)은 기관 내 투명성 확보와 업무처리 과정의

우리/동/네

상수도 전기요금 절감 노력 돋보여

계룡시, 전기요금 절감 위한 송수시스템 개발 나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상수도 송수 중에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송수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현재 인접도시인 대전시로부터 상수도를 공급받아 수도물을 이용 중에 있으며, 대전시 원성구 원내동 기업장에서 약 11km 떨어진 계룡시에 하루 1만 600톤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월 3400여만 원의 전기료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상수도 송수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경부하, 중부하, 최대부하 구간으로 나누는 점에 차인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의 가동률을 높여 상수도 송수에 따른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경부하와 최대부하 시간의 요금 차이는 계절별로 최소 53%에서 최대 135%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시스템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매년 300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력 최대부하 시간에 사용량을 줄이면 국가 차원의 발전소 건설비용 절감과 전력 예비율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 깨끗한 수도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5월 도입 예정인 송수프로그램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작 시작 올바른 종자소독으로부터

논산시, 벼 키다리병 등 종자로 퍼지는 병해충 예방 당부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본격적인 벼 농사철이 시작됨에 철저한 종자소독을 당부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건전한 벼씨를 선별하고, 파종하기 전에 철저한 소독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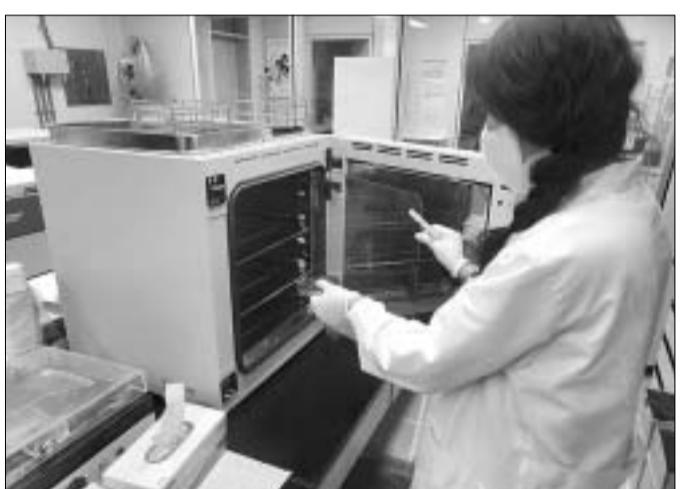
키다리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벼잎선충, 깨씨무늬병은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으로 철저한 종자소독이 중요하다. 특히 벼 키다리병은 종자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으로 키다리병에 걸린 벼는 비정상적으로 웃자라고 새끼치기가 적으며 심하면 줄기와 하얀 포자가 형성되면서 말라 죽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자소독의 방식으로 운탕소독과 악제침지 소독이 있다.

운탕소독은 종자량 10배 용량 60°C 물에 10분간 담근 후 바로 냉수에 담가서 식혀주는 방법이다. 악제침지 소독은 벼씨 밭이기를 이용해 물 온도 30°C를 유지하며 48시간 동안 담가 소독하는 방법으로 품종에 따라 48시간 이내 밭이가 완료되는 종자도 있으므로 수시로 밭이 상태를 관찰하고 밭이가 완료되면 소독을 중지하고 벼씨를 건져 파종해야 한다.

밭이기를 이용하는 종자소독의 경우 종자량 2배 물에 살충제, 살균제를 희석한다. 적용약제를 희석배수에 맞게 사용하며 해마다 같은 약제를 사용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2~3년 주기로 약제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종자 전염성 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벼 보급종 종자 중 삼광, 친들, 침드립 종자에 대해서는 전량 소독 종자로 안전, 새일미는 기준대로 미소독 종자로 공급하게 되기에 소독 방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급식 조리기구 미생물검사

계룡시, ‘적합’ 판정시에만 조리기구 사용 가능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기구 미생물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논산계룡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미생물 검사는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3개 교육기관의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총 65건의 조리기구를 검사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조리기구 미생물검사는 시 보건소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유치원과 학교를 방문해 급식기구 중 빈번하게 사용하는 칼, 도마, 행주 등의 조리기구에서 미생물을 채취해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검사결과 부적합 기구는 즉시 사용중지를 하고 재검사를 실시해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은 조리기구만 사용 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검사에서는 모든 검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조리기구 미생물검사를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기구 미생물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보건소 진료팀(042-840-3550~1)에 문의하면 된다.

일조량 부족 따른 수박 농가 어려움 가중

부여군, 수박의 수정장애·생육부진에 따른 저과증·출하지연·물가상승 예상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수박 주산지인 부여군은 겨울철 일조 부족에 따른 수박재배 동향을 발표했다.

수정장애 및 생육부진에 따라 재배를 포기하거나 재정식 농가가 발생했으며, 향후에는 저과증 수박 생산, 출하지연 등으로 5월 상순까지 수박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부여수박은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지, 농업기술센터의 농가 맞

출형 기술 지원에 힘입어 당도가 높고 과피가 얇아 맛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겨울철 극심한 일조 부족으로 1506㏊ 면적에 수박을 재배하는 1908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평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한 반면 일조시간은 평년 82시간

간에 비해 79% 감소한 17시간이었다.

이런 기상여건으로 인해 저온 환경에서 꽂기부가 나오지 않아 평년 95~98%에 이르던 수정율이 70~80%로 떨어져졌다.

과증이 5~7kg 수준이었던 평년과는 달리 초기 과비대가 되지 않아 3~5kg 수준인 저과증 수박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하지연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수박, 팽기, 토마토 등 농작물 피해를 예상된다.

한편 부여군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수박, 팽기, 토마토 등 농작물 피해를 예상된다.

동정

위생교육



박정현 부여군수= 12일 오전 11시 서동 브리핑실에서 (재)부여군드래프트 학회 회사에 참석, 오후 2시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식품점 객원 종사자 친절 및 위생교육(부여읍)에 참석.

중간보고회



김기웅 서천군수= 12일 오전 10시 판교면 심동리 산촌휴양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17회 심동리 산벚꽃길 걷기 대회에 참석,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기획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서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공고

서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서천군에서 생산해 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 특산품과 가공식품, 생산·제조품, 공산품, 꾸러미, 관광·서비스·체험·숙박 등이다.

신청 자격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사업체로,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배송할 수 있는 업체가 해당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5일부터 이를간 서천군청 홍보감사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5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을 선정하고 고향사랑 다음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천군은 서천사랑상품권, 한돈, 조미김, 표고버섯, 소고주, 현대·전통 모시 총 19종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 공모를 통해 서천군민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전망이다.



회 연합회 회장은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텁정

강단 있는 리더십은 빛났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올바른 이해를 돋구자 언론브리핑을 개최하며 참석한 언론 관계자들에게 화재 사건 개요, 대응 진행 상황, 향후 복구 대책, 예산 확보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력을 증명하듯, 서천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서면 흥원항이 선정돼 국·도비 195억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흥원항 수산물 플렉스, 청년 주거시설 및 테마 가로수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너머, 노 부군수는 지난 4일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자 서면 흥원항 일원을 방문한 김태호 도지사 앞에서 직접 주진현장을 보고하고 역점사업 추진에 속도감 있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충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와의 면담에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임시상설시장 부설주차장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밤 빠르게 움직였다.

재난 상황에서도 노 부군수의

강단 있는 리더십은 빛났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올바른 이해를 돋구자 언론브리핑을 개최하며 참석한 언론 관계자들에게 화재 사건 개요, 대응 진행 상황, 향후 복구 대책, 예산 확보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력을 증명하듯, 서천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서면 흥원항이 선정돼 국·도비 195억원을 확보했으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흥원항 수산물 플렉스, 청년 주거시설 및 테마 가로수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속집행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집행현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등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한 결과, 1분기 신속집행 집행 추진에서 당초 목표액인 1176억원보다 240억원을 초과한 총 1422억원을 집행해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일조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태현 부군수는 “군민들은 수준 높은 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매진하여 군민 중심의 미래 100년 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룡시 2024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나서

생후 0개월부터 고등학생까지…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 제공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오는 13일부터 관내 거주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 북스타트(Book Start) 책꾸러미’를 선착순

정

공주시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최원철 공주시장= 12월 오전 10시 금 강신관 공원에서 열리는 제6회 공 주시장배 그라운 드 골프대회 참석.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김동일 보령시장 = 12월 오전 11시 더프라자호텔 서 울에서 열리는 대 한민국 창조경영 2024 참석.

제34회 부석 견은여제



이완설 서산시장= 12월 오전 10시 50 분 부석면 갈마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34회 부석 견은 여제 참석, 오후 3

시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사무관 임관식 참석.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박범인 금산군수= 12일 오후 4시 금 산을 다목적군민 회관에서 열리는 2024년 4월 주민 자치협의회 월례 회의 참석.

젠더거버넌스분과위 역량강화교육

금산군은 지난 9월 금산읍 여성창의문화 센터에서 젠더거버넌스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분과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폭력평화불결 김석봉 대표의 '돌봄과 성장을 위한 대화, 갈등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됐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을 여는 대화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 △갈등 회복을 위한 대화 △분과위원들의 경험과 비폭력 언어로 대화하기 등이 진행됐다.

군은 성 인지적 관점과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성평등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젠더거버넌스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제안, 교육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히연 금산군 젠더거버넌스 분과위원장은 "티인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갈등 상황에서 비폭력 대화 사용을 실천하면 더욱 깊이 있는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성 평등한 금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제4기 금산군 임업대학 산림경영과정 입학식

제4기 금산군 임업대학 산림경영과정 입학식이 지난 9일 금산을 청산회관 여성 창의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범인 금산군수, 김기운 금산군의장, 광복전 금산군 산림조합장, 안진찬 한국 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산군 임업대학은 지난 2021년 개설돼 총 1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교육과정은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통합반 교육생 40명이 참여하며 산 립경영 8시간, 수목의 이해 및 재배·변식 12시간, 장·단기 임산물 재배기술 12시간, 임산물의 가공·유통 및 마케팅 20시간, 현장 견학 24시간, 기타 4시간 등 총 8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이정복 기자

김동일 시장, 지역 발전 예산확보에 사활

지역 발전 위해 잇따라 중앙부처 방문



중립 선도도시 지정,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예산설명회를 통해 예산총괄심의관(국장급) 및 주요부서 과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동일 시장은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OK 보령 건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보령의 성장동력이 될 해양레저 거점도시와 탄소중립 선도도시 완성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는 보령의 미래 비전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연계·확장을 위한 사업의 국비 반영을 통해 예산총괄심의관(국장급) 및 주요부서 과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동일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기조하에 지역의 주요 현안들의 국비 확보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뛰어 않으면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과 여건을 험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 방문시 논의된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으로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보령 경찰수련원 신축 ▲탄소중립도시 조성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시스템

안전성 고도화 기반 구축 ▲초고속 충전방식 전기차 전용 차선 확장 ▲온천~선촌 항로 국고여객선 조건 ▲K-마리너트 조성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김동일 시장의 활동과 함께 구기선 부시장도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방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정의 중장연계에 초점을 맞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행보다.

이와 함께 부서별 중앙부처 집중 방문기간을 운영하여 전 직원이 함께 뛰는 연동적인 방문활동을 추진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수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디각적인 방안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기조하에 지역의 주요 현안들의 국비 확보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뛰어 않으면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과 여건을 험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우/리/동/네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설계 최종 보고 및 시민공청회

16~22일까지 서산시 누리집에

최종보고 자료 공개 및 의견접수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의 최종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16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종 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 및 설계 기준, 도입 효과, 교차로 볍 현황분석 및 설계(안),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석립사거리,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향교오거리, 본병원 앞 사거리, 서산경찰서 사거리, 호수공원 사거리, 삼일상가 사거리 등 8개소다.

시는 8개 대상지의 회전교차로 설치 우선순위를 공개, 설명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회전교차로 도입이 어렵거나 설치 시 공사가 장기화될 구간에는 대각선교차로 및 교통선 설치 등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상지인 둔당사거리의 사업비 및 추진 여건,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 추진됐으며 지난해 10월 착공됐고 올해 3월 회전교차로 설치가 완료돼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 누리집을 통해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최종 보고자료를 게시하고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직접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서산 시민은 누구든지 16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산시장은 "이번 시민공청회를 계기로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을 설명해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서산시, 소규모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 '큰 호응'

올해까지 100여 건의 농업인 주택 사용승인 완료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 사항이 아닌 소규모 농업인 주택은 시공 시 신고 사항과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거나 부실 시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신고 사항과 다른 공사, 부실시공이 이뤄진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청된 경우, 시는 원상복구, 철거 등 처분을 부과해야 하므로 관련 시민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인 소규모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서산=김정한기자

ETRI, AI시대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美 NAB서 AI 기술로 영상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및 새로운 샷 편집 기술 전시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방송미디어 핵심기술을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일반에 공개한다.

향후 본 기술은 미디어 및 방송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14일부터 4일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송 장비 전시회(NAB2024)에서 연구진이 개발한 방송미

디어 관련 최신기술을 선보인다. 연구진은 AI를 활용한 인공지능시대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들을 소개한다.

전시되는 기술은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및 영상 검색 기술 ▲샷 예측 및 가장 샷 생성 기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ATSC(북미 디지털방송표준화기구) 3.0 재난정보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ATSC 3.0 기반 촉각지원형 입체미디어 서비스 기술이다.

ETRI가 개발한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및 영상 검색 기술은 미디어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을 분석해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만든다.

이를 활용하면 멀티모달 영상 검색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메타데이터를 자동 생성하고 다양한 영상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용량 아카이브 환경에서 효율적인 영상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산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샷 예측 및 가장 샷 생성 기술은 다른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기편집본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새로운 구도의 가장 샷을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양한 구도의 영상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해 주며 관련 서비스 분야에도 활용 가능한 전문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의 플러그인 앱 형태로 개발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ATSC 3.0 재난정보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재난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미디어(청각장애인용 아바타수어 영상, 시각장애인용 해설 오디오,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이미지)로 제공한다.

이 기술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재난정보미디어를 수신하고 재생할 수 있는 ATSC 3.0 기반 셋톱박스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ATSC 3.0 기반 촉각지원형 입체미디어 서비스 기술은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에서 시청자에게 입체영상 및 촉

감을 전달하는 몰입형 실감콘텐츠 서비스 기술이다. ETRI는 현재 해당 기술의 국제 표준화 및 AI 콘텐츠 생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NAB의 회장 커티스 레게이트(Curtis LeGette)는 "ETRI가 NAB 2024에서 선보인 미디어 및 AI 서비스 기술은 미래 방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적 기술이다"고 밝혔다.

ETRI 이태진 미디어연구본부장도 "이번 NAB 2024를 통해 ETRI 미디어 지능화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적 미디어 속성 추출 및 공유 기술 개발 ▲학습 기반 연출 기법이 적용된 미디어 제작 기술 개발 ▲재난정보인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재난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사용자 선택형 UHD 입체 미디어 서비스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다.

이정복기자



공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공주시의회(의장 윤구병)가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배재대 '총장님이 쓴다' 이벤트 실시
김옥 배재대학교 총장과 대학 보직자들이 9일 대학 스포츠에서 재학생 150명의 견의사항을 청취하는 '총장님이 쓴다' 이벤트를 가졌다. 이날 이벤트는 배재대 홍보대사 '배재아파'가 기획해 학생과 대학 경영진간 소통참여를 도모하는 장으로 구성했다.

아산시 '제63회 이순신 축제' 홍보 발 벗고 나서

아산테크노밸리와 함께 거리 캠페인



아산시 투자유치과는 지난 8일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으니 산업단지 근로자분들과 주민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온양온천역, 광교천 등 아산시 전역에서 진행되며 ▲군악의장 페스티벌 ▲학이진 댄스대첩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떨사지생 필생증자 공연 ▲이순신을 외치다 릴레이 버스킹 등 주요 프로그램과 ▲전국 노젓기대회 ▲백의종군길 전국 걷기대회 ▲백의종군길 마리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정현모 투자유치과장은 "오늘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아산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성웅 이순신 축제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

아산=리량주기자

평택해경, 도비도 인근

갯벌 고립자 1명 구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3시 9분경 도비도항 선착장 앞 인근 갯벌에서 갯벌 활동 중 갯벌에 빠져 움직일 수 없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평택해경은 대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구조에 나섰으며, 신고 약 13분 만인 23시 22분경 먼저 도착한 대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구조용 서프보드를 활용해 고립자 구조를 시도했으며 고립자 1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후 23시 49분경 구조 완료 후 안전하게 육지로 이동시켰다.

구조된 남성(50대)은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구조된 남성은 배우자와 함께 갯벌 활동을 하려 왔다가 허리까지 갯벌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배우자가 신고해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갯벌 활동 시에는 항상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방수팩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긴급 상황 시 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디지털문화 전시공간으로 탈바꿈

반기사유상, 손흥민, BTS 까지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한 공사 제품 전시



전시실 내 기념메달 부스에는 다양한 메달이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다.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BTS 데뷔 10주년 기념메달'을 비롯해, '손흥민 기념메달', '반기사유상 기념메달', '페ipl스토리 20주년 기념메달'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폐공사가 화폐제조기업에서 문화기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념메달 제품 대부분은 품질이거나 오

프리미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제품이기에 박

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새로운 불가리

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제품 부스에는 모바일신문

증, 모바일상품권 등 조폐공사에서 제조공

급하는 ICT분야 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설치해 관람객의 ICT분야 이해도를 높였다.

송병배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서재윤)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저출산·고령화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2024년 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대행을 신청·접수한다.

4만 2080여명 규모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되며 이중 제조업은 2만 5906명, 서비스업은 4490명으로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 이상)을 해야 하며, 내국인 구인노력의 일수 부족시 워크넷 구인노력(3일 이상) 및 일간지 지면광고(3일 이상)를 병행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 한식업 종대전시 5개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와 충남 3개시(천안시, 아산시, 서산시)지역에 내국인 5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또는 내국인 5인 미만, 업력이 7년 이상인 업체의 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취업(E-9)이 신규 도입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es.kb.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합격 발표는 5월 21일로, 합격업체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송병배기자

대전봉사체험교실 장학기금 및 현물 한남대 기탁
대전지역 봉사 단체인 대전봉사체험교실(회장 권홍주)이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기금과 한남대 용역직원들에게 사랑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2030 청년자문단 모집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정부의 청년정책에 부응하여 미래세대 목소리를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자 2030 청년자문단을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청년자문단은 ▲기후 위기와 인천한물 ▲물복지와 지역 활성화 ▲미래의 물과 청년, 세 가지 분야로 운영되며, 위원회 일로부터 1년간 경영 및 사업영역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수렴, 의견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1985년 4월 ~ 2005년 4월 생)은 누구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20명 내외의 자문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유아숲체험원에서 자연 배우다!”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새단장

예산군 봉수산 관리 사무소는 지난 3월 수목원 지구내 위치한 유아숲 체험원을 새단장하고 유아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유아숲 체험원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놀이 체험 시설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봉수산 수목원은 유아숲 체험원을 그리고 봉수산자연휴양림에서는 숲 해설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봄, 여름, 가을 등 테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존 놀이터와는 다른 자연 친화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아숲 체험원 및 숲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신림복지전문협동조합 함께숲에 문의하고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예산=박제화기자

“시민 성원에 감사... 경제·민생회복에 집중할 것”

재선도전 성공한 강준현 “4년 경험 바탕으로 실리적인 성과 만들 것”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강준현 당선인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당장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쳐하지 말고, 개헌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끌고 강 당선인은 “세종을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 수도로 발전시키고, 스마트산업밸리를 조성해 일과 사립2 넘치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이후 11일 오전 강준현 당선인은 국회 의원 당선증을 수령, 아침 출근길 당선인 사에 이어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함께 조치원 충령탑을 찾아 참배하며 세종시민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민생회복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강 당선인은 향후 세종시 곳곳에서 감사인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복기자



'함께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1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사)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지회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로 '제44회 장애인의 날 & 복지관 개관 1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성공적인 신사태 대응 위해 산림재난 협력체계 강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 한국지식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및 각 시도 산사태 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여름철 신사태를 대비한 '2024년 자연 재난 대책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강형장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경비사업 현장 점검 조희승 군 감유역환경점검은 11일 금강 평목지구 하천환경 경비사업설계 현장(공주시)을 방문해 제방 축제를 통한 홍수 예방과 생태 공간 조성으로 친환경 수변공간이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 지역아동 심폐소생술 교육봉사 진행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효인이 하대전과기대)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인 '문제해결 재능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학과 4학년 이지현 외 11명의 학생들은 지난 4월 5일 지역아동과 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생활가선회, 지역사회 온정 나눔 훈훈 한국생활가선회는 지난 9일, 직접 만든 떡과 강정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회원 10여명은 이날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식품조리실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콩설기와 강정을 정성껏 만들었다.



대전대 간호학과 '제28회 임상 실습기념회' 성료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간호학과(교장 김지현 교수)는 11일 블랙박스홀에서 제28회 임상 실습기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첫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과 3학년 학생 85명과 학과 교수, 재학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촛불 의식, 격려사와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했다.

조승래 · 강준현 · 박정현 · 박성준 동문 국회의원 당선

충남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4명 배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진 가운데 충남대학교가 조승래, 강준현, 박정현, 박성준 등 4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조승래 동문(사회학과 86학번, 평화안보대학원 평화안보학 석사)은 대전광역시 유성구갑에 출마해 56.77%(60,038표)로 당선됐다. 조승래 동문은 제20대, 21대 국회에 연속으로 진출했으며,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조승래 동문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승래 동



문의 지역구인 유성구갑에는 충남대 대학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강준현 동문(건축공학과 84학번, 대학원 건축계획 석사)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출마해 50.81%(61,728표)로 당선됐다. 박성준 동문(법학과 83학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출마해 50.92%(49,273표)로 당선됐다. 박정현 동문은 제21대 국회에 진출한 이후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정현 동문은 KBS 대전방송 총국アナ운서, JTBCアナ운서를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시 대덕구청장에 당선돼 대전 지역 첫 여성 지자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바 있다. 박정현 동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준 동문(대학원 정치학 석사)은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에 출마해 50.81%(61,728표)로 당선됐다. 박성준 동문은 제21대 국회에 진출한 이후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성준 동문은 KBS 대전방송 총국アナ운서, JTBCアナ운서를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 세대간 소통으로 민주적 조직 문화조성

'함께할 결심 678900'의 출범식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1일 오후 흥성 종남교육청유아교육원 강당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장급부터 주무관까지 참여하는 세대공감 학습 공동체 '함께할 결심 678900'의 출범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함께할 결심 678900'은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60·70년대생부터 80·90·2000년대생까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세대의 경험을 나누고, 같은 없는 직장생활을 위한 리더십과 책무성을 연구하는 세대공감 학습 공동체를 말한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에서 주관하는 이번 학습 공동체는 모두 100여 명으로, 중견 세대를 대표하는 국장급과 과장, 팀장급 모두가 참여하였고 이른바 M2세대를 대표하는 장학사, 주무관 중에서 희망자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이날 세대공감 첫 번째 배움자리로 <2000년대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를 초청하여 2000년생이 고등학교를 지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원칙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신구세대의 특징과 세대공감 방법론 등을 공유하는 저자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김정환기자



대덕구, 여성 일자리 협의체 발족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등 6개 기관과 맞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지역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여성일자리 협의체'를 새롭게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족한 '2024 대덕구 여성일자리 협의체'는 대덕구 구족친화회,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해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대전·세종 양성평등센터 등 36개 전문가와 ▲대덕구구족지원센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복합마더센터(신년진 소재) ▲디힐페

대덕구 여성일자리 협의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대덕구 여성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로 직업 상담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 대전센터는 창업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창업 인큐베이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대덕구 여성일자리 협의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대덕구 여성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등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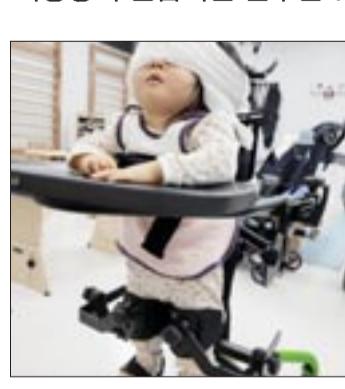
또한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로 직업 상담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 대전센터는 창업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키워주는 창업 인큐베이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제3차 희망풍차 긴급지원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도내 위기 가정 7가구에 희망풍차 긴급지원금을 전달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을 위한 위기장을 발굴해 생계·주거·의료·교육·영양·문화·사회·정신·기쁨·안락 등 10가지 분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상범기자

희망풍차 긴급지원 솔루션 위원회 개최 통해 7가구 선정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제3차 희망풍차 긴급지원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도내 위기 가정 7가구에 희망풍차 긴급지원금을 전달한다.

대한적십자사의 '희망풍차 긴급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을 위한 위기장을 발굴해 생계·주거·의료·교육·영양·문화·사회·정신·기쁨·안락 등 10가지 분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상범기자

안영진 대전식약청장, 탁주 제조업체 위생안전관리 현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영진 청장은 12일 탁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지평주(주) 충남 천안시 소재를 방문해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주요 점검은 ▲제조시설 위생 관리 실태 ▲이불 제어 관리 현황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송병배기자

드린다"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한행신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신했다.

유성구 전민·구즉·관령동 지역의원인 한행신 의원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아파트 장애인 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우수부문에서는 안면새마을금고, 백제새마을금고, 천안서부새마을금고, 서천군새마을금고, 삼성새마을금고, 혁신경영부문에서는 남대전새마을금고, 기양1동새마을금고, 탕정새마을금고, 자산육성부문에서는 중부새마을금고, 고객만족부문에서는 서대전새마을금고, 대전온천새마을금고 등 12개 새마을금고가 부문별 우수금고로 수상했다.

김인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위기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 및 회원과 동행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리딩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새마을금고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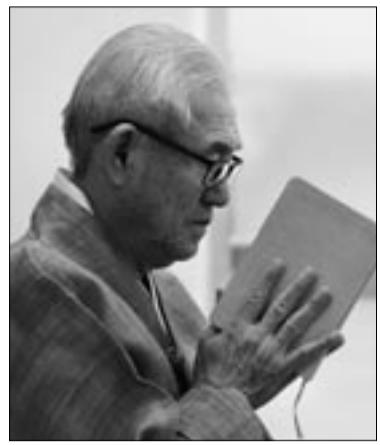
청양군 장곡사 벚꽃길 만개, 이번 주절정 벚꽃이 만개한 장곡사 삼거리부터 36번 국도와 만나는 주정교 삼거리까지 5.7Km의 구간을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한다. 장곡사 입구와 인근의 벚꽃은 지난 토요일부터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벚꽃이 만개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청양군 장곡사 벚꽃길 만개, 이번 주절정 벚꽃이 만개한 장곡사 삼거리부터 36번 국도와 만나는 주정교 삼거리까지 5.7Km의 구간을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한다. 장곡사 입구와 인근의 벚꽃은 지난 토요일부터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벚꽃이 만개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천명일 '이야기천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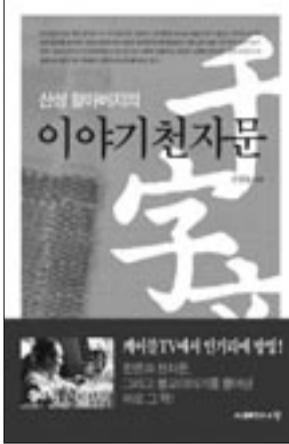
菜重芥薑

채나물 채重무거울 중芥겨자 개薑생강 강



천명일

나를 반찬을 만드는 데는 겨자와

생강이 들어가야
만제 맛을 낸다

음식의 종류가 3천 종이 넘는다는 중국인들의 별스러운 미각을 생각하면 주종사도 기가 막혔을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음식문화라고 한다. 요즈음은 사람들 이 문화文化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잘 모르겠다. 성애의 행위를 성문화라고 하고, 예모나 정치성 폭동을 데

모 문화라는 미명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다수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망치고 있다.

'문화'란 '궐월 麟越 문文' 자와 '월화化' 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신성한 문자처럼 된다'는 뜻이다.

나 자신이 궐월 문의 '문文' 자처럼 심신의 흐린 육감에서 벗어나 저 밝고 맑은 초월의 식으로 혁신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이것이 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무지한 중생의 애고가 슈퍼에고로 의식

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그렇게 의식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거나 있을 경우에만 쓸수 있는 용어가 문화文化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을 말살하는 퇴폐 행위에도 문화라는 언어를 마구잡이로 남발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지성인들의 '무관심 문화'에 회의가 인다.

군자들은 채식 채식을 중히 여겼다. 그것은 채식을 하게 되면 정신이 맑고 밝기 때문이다.

특히 겨자는 우리 몸의 장부臟腑를 따뜻하게 한다. 또한 생강은 신명神明을 통하여 하며 약취를 제거하니 나를 반찬에는 특히 겨자와 생강을 중히 여기고 애용했다는 시구

시구가 '채중개강 채중개강 菜重芥薑'이다.

시의 향기



현영길 시인의 '서울찬가'

할미꽃

할미꽃 사연
지팡이 세월 소망

현영길 作

지팡이 어정 함께 한 벗
흔들림이랑 못하지 않는 너
할미꽃 지탱해주었던
너 삶 끝 죽은 후
아름답구나!

▶시작 노트: 삶임을 만날 고대 달려온 세월 앞만 보고 온 할미꽃 어느새 아름다운 지팡이 벗 함께한 삶의 무게 끝 본향 있기에 소망 저곳임이 계신 본향 삶 이제 시작이라네!

시의 향기



노중하 시인의 '봄내골 사랑'

불평 없는 삶

인생이란 행복과 슬픔의 연장선
슬픔 때면 기뻐 쓸 때를 생각하고
고통을 극복하면 행복이 보인다.
지난날의 역경을 참고 견디는 습관일상 생활에서 언행과 행동을 조심
주어진 여건에서 책임감을 느껴라.
원망하지 말고 격려와 위로의 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칭찬을 많이 하여라

우울하거나 걱정이 태산이며
행복했던 과거를 연상하라
넓은 광야를 찾아 희망을 펼쳐라
낭떠러지를 만나면 둘러서 가라

꿈과 희망을 항상 품에 지니고 살라
꿈이 없는 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있으면 꿈은 이루어지이다
긍정적인 사람만이 행복을 영위하느냐라

한홍선 자원봉사자의 '봉사 이야기'



한홍선

한국문화해외교류협회 서울경기지
회장 · 자원봉사위원자원봉사는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지역과 국가에 헌신하는 일이

다. 원민한 봉사의 운영을 유지하려면 뭐니뭐니해도 경제적인 후원금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기부금은 자원봉사의 동력을 일으키는 비타민 원소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부자 1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이다. 그간 후원액은 760억 달러로서 단연코 선두를 달린다. 이어 버크셔해서웨이 '워런 버핏'은 582억 달러 등이다.

국내에서는 SKC의 최신원 회장, 풍산그룹 류진회장 등도 매년 꾸준히 사회에 기부를 하여 원만한 사회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비타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

회가 설립한 아니 소사이어티 고액 기부자 모임이 있다. 이 그룹은 개인적인 기부활성화를 통한 노블리스오브리제 실현이 목적이이다. 회원은 2020년 7월 울산회원대표총회 일 기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2,344명에 누적 기부액은 약 2,589 억이 모아졌다.

아니 소사이어티 회원중에는 매주 토요일 인기리에 방영되는 KBS-TV '동네 한 바퀴'의 탤런트 김영철 외에도 탤런트 이순재, 축구 선수 박지성, 정강의료재단장 정광모 이사장, 충남 금산 삼남제약 김호택 회장 등이다.

또한 요즘 '배달의 민족' 김봉

진' 민족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사람은 없다. 근래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 가족간 재산 다툼, 침질과 이혼 등 기존 재벌들 형태가 벌어지는 이때 김봉진 회장은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는 1976년 전남 완도의 작은 섬 소인도 부속 섬 '구도'에서 '빈농'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엄마가 운영하는 작은식당에서 삶을 자면서 컸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늦게야 서울예술전문대학을 가까스로 졸업했다. 사업으로 실패를 하면서 전세보증금까지 날리고 2억 원의 빚더미 속에 월세를 뜯내 극심한 생활고를 겪기도 했다.

사설

막 내린 22대 총선

어렵다.

국민은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일대 변화를 바란다. 따라서 여야는 국정을 함께 끌어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또 각 정당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선거 결과를 아진인수(我田引水)식으로 받아들여 지난 국회처럼 또다시 대립만을 일삼아가는 국론 분열과 국가적 에너지 낭비를 피하기 어렵다.

당선된 선량들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국민 앞에 악수했던 공약들을 지키고, 나아가 여야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국정을 논하는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다. 승리한 정당도, 패배한 정당도 분노와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부터 여야는 승패를 뒤로하고 서로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추구해 나가길 간절히 기원한다.

대전상의, 제238차 대전경제포럼 조찬세미나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 초빙 내 인생의 무지개를 띄우는 7가지 성공 방정식 특강



새롭게 취임한 이승철 한남대학교 총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중인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를 소개, 완공 후 파크 내 지역 강소기업 유치 예정임을 밝히며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스타트업 소개 코너에서는 탄소복합재 추진기 기술을 개발한 '주식회사 모쓰(대표 이재형)'가 소개됐다.

포럼 강사로는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가 초빙돼 '당신은 사업자인니까, 사업가인니까? 내 인생의 무지개를 띄우는 7가지 성공방정식'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유 교수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삶보다 환경에 도전하며, 안락지대에서 '성장지대'로 발전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덧붙여 "무엇이든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습관'이 '직'으로 바뀔 수 있다"며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를 해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는 팀원의 재능을 찾아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강점 코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성원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해, 철동호 대전시교육감,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이동열 하나님행동종교총회장, 김용하 건양대학교 총장, 이승철 한남대학교 총장, 김영찬 서대전 세부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병배기자

홍성군, '교과서 속 문화유산' 찾기 프로그램 운영

지, 신경리 미애여래입상 등 대표 문화유산을 답사하게 된다.

활동지를 수령한 학생들은 문화유적을 방문하여 제시된 과제를 모두 수행한 후, 홍주성역사관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친밀감을 기르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지역 문화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

북대전농협

북대전농협(조합장 심청용)은 지난 9일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면학 분위기 조성과 조합원 자녀에 대한 학비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북대전농협 창립후부터 지금까지 약 700여명의 학생에게 약 4억원을 전달함으로써 조합원 자녀에게 농업, 농촌을 사

랑하고 농협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자 복지사업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다.

심청용 조합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조합원 가족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장학사업 등 조합원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 · 김성식 · 김종복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 5000원

등록번호 : 대전기 00017 인쇄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대전투데이

진료과목

내과 | 외과 | 가정의학과 | 정형외과 | 이비인후과 | 물리치료



디딤돌유성의원
디딤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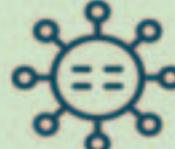
3월 4일 진료개시

유성온천역 4번출구 바로앞

지역주민분들을 위한 건강한 삶, 함께하는 기쁨
세심한 진료와 정확한 진단으로 진료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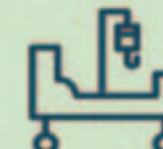
각종
예방접종



물리치료실
운영



X-RAY실
최신검사장비



수액실
운영

|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9:00 ~ 오후 6:00
점심시간: 오후 12:00 ~ 오후 1:00
토曜일: 오전 9:00 ~ 오후 1:30

문의 042.721.7505

| 오시는 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84, 레자미3차 205호 (유성온천역4번출구)